



**ADMA**

on line

2024년 12월



토리노 발도코 월간 메시지

# 요약

## 사설

- 3

주님의 오심을 마리아와 함께 기다립시다.

---

## 양성 여정

- 4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4. “부지의 이름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문”.

---

## 친숙한 문자

- 5

애무.

---

##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6

복자 필립보 리날디 살레시오회 사제.

---

## 가족연대기

- 8

- 캘커타의 제1회 아드마의 날.
  - 베네주엘라 - 제36차 아드마 전국대회 개최
  - 브라질 - 환영, 우정, 교리 교육, 희망의 장소인 레센데에, ‘성요셉’ 오라토리오를 새롭게 열다.
- 

## 월간 기도지향

- 10

희망의 순례를 위하여.

---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mailto:adma@admadonbosco.org)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www.admadonbosco.org](http://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



## 주님의 오심을 마리아와 함께 기다립시다

아드마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성탄을 앞둔 대림시기의 문턱에서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과 단순한 일상 안에서 대화하며,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기 위해, 올해 양성여정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또한 대림시기는 마리아적 차원을 강화하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초대하는, 우리 카리스마의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을 기도로 채우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시기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있고, 인류는 여전히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으며, 전쟁, 증오, 가난, 외로움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를 위해 아직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셨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역사를 변화시키시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기도와 경청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관상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인간성, 육체, 강점과 결점, 원의와 상처투성이인 삶과 우리의 일상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머무시며, 이 공간이 곧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구유가 됩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자신을 작고 겸손한 존재로 만드셨으며, 우리도 그분처럼 작고 겸손하게 되기를 바라합니다.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그분처럼 작은 것들 안에서, 구체적인 침묵의 몸짓과 축복의 시선, 따뜻한 포옹,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합니다.

마리아는 대림시기로 들어가는 문이며, 대림을 살게 하는, 희망의 어머니, 원죄 없으시며 도움이신, 경청하는 동정녀이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여 예수님을 잉태하셨으며, 아드님의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돈보스코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사건과 상황, 만남, 어려움, 기쁨과 수고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리아를 본받는다든 것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며, 우리의 겸손한 응답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며, 형제 자매들을 숨쉬게 하는 산소가 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조금 더 기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로운 성탄과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크루즈 트레조 신부,  
SDB 발도코 아드마 영적활성자.

레나토 발레라,  
발도코 아드마 회장.



## 양성 여정

### 교회의 희년을 위한 위대한 기도의 교향곡

## 4. “부지의 이름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문”

### 기도의 예술

이것은 진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회의 참되고 효과적인 사도직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암송기도와 마음으로 하는 기도(묵상)가 있으며, **성체흡수와 관상기도는 마음의 기도** 라고 불리웁니다. 전례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으며, 기도하는 사람의 내적 상황과 시간에 맞게 예식서에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결실을 맺지 못할 근본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구체적인 형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과과의 자녀적인 관계를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랑이시며 스승이신 분을 자주 만나는 것이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마리아의 자비로운 시선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은총으로 이미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룩한 현존 앞에 머무는 것이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천상의 삶에 미리 참여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암송기도**, 이미 준비되어 있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하는 기도, 즉 수세기에 걸쳐 우리보다 앞선 신자들이 즐겨 참여했던 암송기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암송기도는 아주 소중하며 큰 결실이 있습니다. 낭송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며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올바르게 이를 실천한다면, 암송기도는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루종일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고, 크고 작은 것들 안에서 온종일(밤에도), 하느님과의 일치의 비밀인 “거룩한 약속시간”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암송기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의 특별한 일치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자 하는 원의로부터 오며, 그분의 현존에 습관적으로 머물게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그분께 말씀드리게 되는, 폭넓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자들이 수세기 동안 실천해온, 이처럼 잘 준비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 기도 덕분에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던 기도문도 조금씩 친근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 텍스트가 “우리의 것”이 되고, 삶으로 말하기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 올바른 단어를 우리 입에 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공동기도** 는 교회가 보장하는 안전한 기도이며, 하느님의 신비에 도달하게 도와주는 참되고 엄청난 기도의 학교입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선인 신앙을 온전하게 전달해주며,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진리를

기도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기 때문에, 작은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보물입니다. 또한 이 기도문들은 그리스도교인들이 수세기에 걸쳐 손에서 손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각 언어와 문화의 감수성을 각인시켜 온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교회의 가톨릭성을 반영하는 감동적인 연속성 속에서, 우리의 기도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바치던 기도라, 친밀감과 고향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바칠 때면, 기도문을 차분히 묵상하게 되고, 개인적인 묵상 안에서 ‘반추’하면서 영적인 향기를 발산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은 가난한 자의 기도로서, 예수님의 가난한 자,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산이자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들의 일치와 평등의 표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잘 드리기 위해 여러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 기도들을 바친다고 기도가 “소멸”되듯이 닳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보물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며,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겨우 이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래에도 여전히 이 기도들을 바치게 것입니다. 기도는 약간의 통찰력만으로도 하루를 밝혀주며, 잊고 있었던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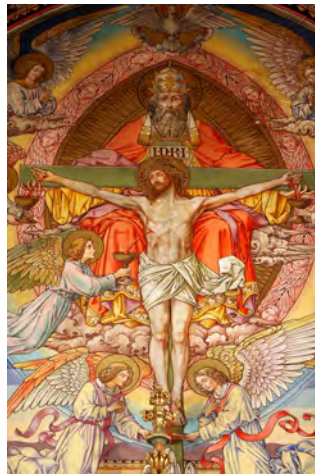
###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반적으로 기도의 질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영혼의 선을 위하여, 기도를 하기



전의 준비는, 기도의 어려움과 분심을 없애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전통적으로 기도의 시작을 뜻합니다. 십자성호는 우리가 하느님 면전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엄위로우신 하느님의 현존에 대한 지각은, 기도의 커다란 비밀이며, 진지하게 기도에 임할 수 있게 해주고, 진지하면서도 친밀한 기도를 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몸에 신심 깊게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시켜 줍니다. 그분은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의 섭리적인 통치자이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바치신 구세주이십니다.



십자성호를 긋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단계를 표시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날 때, 심의 순간에, 식사 전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몸에 십자성호를 긋습니다. 또한 우리는 축복의 표시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성호를 그어줍니다.

십자성호는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의 표징이며, 우리 삶의 프로그램입니다. 십자성호로 우리는, 이상적으로 우리의 정신(머리), 의지(가슴), 활동 능력(어깨)을 우리의 손으로 짚어가며,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하신 성삼위를 만나는 공간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표징을 우리 몸에 재현하며, 물리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포용해주는 하느님 을 뜻하며, 그것은 예수님의 수난 대가를 기억시켜 주며,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실제로 우리가 세례를 받던 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휘장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고 겸손하게 실천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진 기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기도의 정점에 더 쉽게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문인 십자성호입니다. 십자성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서 반향이 되어 올리는 것은, 기도하기를 배운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배운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코 파네로 신부, SDB

## 친숙한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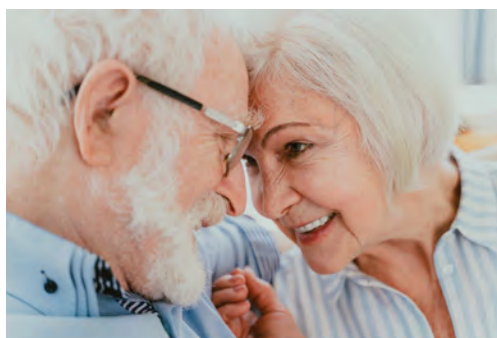
### 애무

우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조장하고 미디어계가 격하게 이를 찬양함으로 인해, 정숙함에 대한 크나큰 상실로, 사랑의 제스처가 지닌 소중함을 잃어, 그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시급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정의 제스처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은 조심해야 하며, 값비싸고, 가장 거룩하며,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기본적인 증거를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금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억압하는 것들을 벗어 던지고, 사랑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해보라는 설득력 있는 초대와 즐기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 그리스도인은 성 혐오적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계시로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여자에게서 나신’ 하느님을 고백하며,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하면서, 무한한 감사로 ‘그의 상처로써 우리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은 인간의 몸과 영혼의 일치를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가 느끼는 유산의 무게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서양의 문화는 가장 영적인 감각을 시각과 청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신앙은 신비스런 촉각의 우위성을 알고 있습니다. 보다 깊은 하느님 체험은 영적 직관이나 도덕적 완전성이 아니라 성체 체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은, 감수성의 극복이 아니라, 영적 감성의 발달, 즉 모든 것에서 주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그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의 자비로우신 몸을 실제로 맛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랍어 이름을 가진 프랑스 철학자이자 유대인 태생으로 가톨릭 신자인 하자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다 깊은 사랑은 촉각적인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 한 어머니가 너무도 관상에만 빠져 있다면 그의 아이는 병들 수밖에 없다. 교회의 모든 성사는 촉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인터넷에 대한 최고의 저항을 드러낸다. 세례 장소가 없거나 대중이 믿는 것과는 달리 텔레비전 미사는 없다. 전화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메일로 영성체를 할 수 없다. 손이 필요하다. 말이 서로 오가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하는 것은 시각이나 청각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동물과 가장 많이 나누고 있는 것,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감각은 훨씬 뒤처지지만, 실제로 촉각의 섬세함만큼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말한다.“

### 애무에 대한 찬사

영화감독 올미는, 주인공 한 명에게 내가, ‘세상의 모든 책은 애무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그가 하는 애무는, 사랑의 많은 제스처들 가운데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된다!

애무는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모우는 애정의 부드러움의 신비를 표현합니다. 이름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애무’는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는 ‘카로’에서 유래되었으며, 사랑의 감정, 상대방의 소중함,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과 연약함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 줍니다. ‘나는 당신이 사랑스러워요. 나에게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말을 손의 제스처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애무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것과의 접촉이며, 신비를 만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애무는, 몸의 표면을 만지지만, 영혼의 깊음을 추구합니다. 애무는 정의하거나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어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로스에 대한 최고의 현상학 학자인 유대인 철학자 레비나스는, “애무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에서 끊임없이 벗어나는 것을 환기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애무는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의 탐색의 여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애무의 진실을 자세히 살펴보면, 섹슈얼리티와 순결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소속감과 서로를 존중하려는 의지가 하나가 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베르토 카렐리 신부, SDB**

(출처: 로베르토 카렐리 - 친숙한 문자)

## 복자들과 거룩한 살레시오 가족들

### 복자 필립보 리날디 살레시오회 사제



“그분에게 ‘내가 언젠가 도망칠까 봐 두렵다’고 말했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해 준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데리러 갈 것이다’”. 성소 식별을 위해 기숙학교에 와 있던 스물 한 살의 청년, 필립보 리날디에게 제노바의 삼피에르다레나 공동체의 원장인 바오로 알베라 신부가 한 즉각적이고 사랑 가득한 이 대답은, 한 편에서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느끼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적 상황에서 돈 보스코가 이미 사용했던 것과 같은 전략이었다.

1856년 5월 28일, 알렉산드리아의 루 몬페라토에서 9남매 중 여덟째로 태어난 필립보는 다섯 살 때 처음으로 돈 보스코를 만났다. 성인 사제는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많이

다녔는데 그 중 한 기회에 만났던 것이다.

젊은 필립보의 기질은 돈 보스코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지만 돈 보스코는 그에게서 훌륭한 교육자가 될 좋은 자질을 알아볼 줄 알았다.

리날디는 열 살 때, 학업을 위해 미라벨로의 살레시오 집으로 왔다. 거기서 돈 보스코를 두 번 만났는데 금방 친구처럼 느꼈다. 그 후, 어떤 가혹행위가 있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돈 보스코의 집은 너에게 항상 열려있단다.”라며 돌아오라고 권유하는 성인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저는 사제가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돈 보스코의 생각은 달랐다. 1876년에 돈 보스코는 필립보를 찾아갔는데 그는 이제 스무 살이 되었고 청혼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돈 보스코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였다.

후에 리날디 신부는 이렇게 고백하였다. “나는 돈 보스코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이의 제기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학교 공부 때문에 두통과 왼쪽 눈이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면서 한 해 더 가족과 함께 지내겠다고 하였다. 돈 보스코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초대하였다. “이곳으로 오너라! 두통은 사라질 것이고 시력은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질 것이다.”

필립보는 그 동안 보였던 자신의 모든 저항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외쳤다. “너무나 많이 은총에 저항했던 내가 앞으로는 더 이상 은총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성모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필립보 리날디는 스무살에 삼피에르다레나에서 성소 여정을 시작하였다. 수련기를 거쳐 1880년에 돈 보스코 앞에서 종신서원을 하였다. 1882년 12월 23일, 사제 성품을 받던 날, 기나긴 성소식별의 끝자락에 돈 보스코는 그에게 질문했다. “이제 행복합니까?” 필립보는 감격하며 대답했다. “예, 저를 신부님 곁에 두신다면요!”

49년 간의 사제 생활 중, 첫 20년 동안 청년 성소자들을 위한 기숙학교인 마티 토리네세에서 그리고 토리노의 ‘성 요한 세레자’와 스페인 바르셀로나-사리아에서 연이어 원장을 역임하였다.

돈 보스코가 임종하기 며칠 전, 리날디 신부는 그에게 고해성사를 보았다. 기운이 다한 돈 보스코는 사죄경을 외우기 전에 단 한 마디 “목상”이라는 말을 하였다.

돈 보스코의 첫 후계자인 미켈레 루아 신부는 1889년에 리날디 신부를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있는 사리아의 원장으로 임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은 매우 예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기도와 온유함 그리고 젊은이들과 살레시오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와 같은 따뜻한 현존으로 활성화하여 그곳의 사도직을 되살렸다. 그 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구장으로 임명되어 살레시오가족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리날디 신부는 존경받는 귀족 도로테아 초피테아 부인의 경제적인 도움 덕분에 불과 9년만에 16개의 새로운 집을 열었다.

그곳을 방문한 돈 루아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1901년에 그를 수도회의 부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새로운 임무에서 리날디 신부는 결코 자신의 사제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정적으로 일했다. 신중함과 애덕과 지혜로 20여년간의 수도회 통치 임무를 수행하였다. 1910년 복자 루아 신부가 선종한 다음에도 리날디 신부는 신임 총장 바오로 알베라 신부의 부총장으로 재선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료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특기할 만한 자취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 미사를 봉헌한 후 5시부터 고해성사를 주기 시작하여 두 시간 동안 고해소에 머물렀다.

생애 마지막 9년은 수도회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 1922년 4월 24일 바오로 알베라 신부에 이어 총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처음 원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줄리오 바르베리스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내가 원장이라니! 불쌍한 젊은이들을 파멸로 이끌게 될 줄을 그들은 모른다 말인가? 그 생각을 하면 황당하기만 하네.”

총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이는 저에게 커다란 고행입니다. 돈 보스코와 그 후계자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돈 보스코의 정신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시키고 총장의 역할 수행에서 부성애와 풍부한 창의력을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성소에 대한 돌봄, 젊은 노동자들을 위한 영적·사회적 지원 센터 설립, 역사적으로 특별한 시기를 당면하고 있는 살레시오수녀회에 대한 지원 등에서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살레시오협력자회에 큰 자극을 주었고 세계남녀 동문회를 설립하여 조직적으로 크게 발전시켰다. 리날디 신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동문들은 우리가 한 수고의 결실입니다. 사목터에서 우리는 젊은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만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동문들을 위한 일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열성적인 도우미인 마리아회원들 가운데서 일하는 중에, 세속에 살면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봉헌생활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걸음을 시작하여 “돈 보스코 여자재속회”를 꽃피게 하였다.

그의 총장 재임기간에 맺은 결실은 더 없이 풍성하였다. 살레시오 수도회는 놀랍게 성장하여 그의 임기 초에는 404 공동체, 4788명의 회원이었는데 임기 말에는 644 공동체, 8836명의 회원으로 성장하였다. 그 시기 공동체들 안에는 “장상의 권위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느껴지는 분위기를 호흡할 수 있었다.”

리날디 신부가 살레시오회 선교에 준 자극은 엄청났다. 선교센터와 잡지 그리고 단체들을 설립하였으며 그의 재임기간 동안 1800명 이상의 살레시오회원들이 온 세상의 선교지로 떠났다. 그렇게 돈 보스코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새 사제 시절 리날디 신부가 선교를 떠나게 해달라고 청했을 때, 돈 보스코는 “너는 여기 남아 있을 것이다. 선교지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었다. 리날디 신부는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수많은 여행을 하였다. 감탄할만한 열정과 부성애를 보여주었고 살레시오 사목의 진정한 본질은 외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고 평화로우며 차분한 내적인 삶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비오 9세의 호응을 받아 성화시킨 일에 대한 대사를



인준받음으로써 그의 역동적인 영성과 일에 대한 개념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형태로 번역하였다. 영적인 삶의 스승인 그는 항상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살레시오회원들의 내적인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의 후계자인 피에트로 리칼도네 신부는 이렇게 증언한다. “신부님은 건강이 좋지 않은 때가 많았지만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회의, 방문, 글을 통해 회원 양성에 열정을 다했으며 모두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였다. 평생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고 모든 부류의 남녀 노동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형태와 저축조직을 확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이는 항상 그리스도교 노동조합 운동과 사회 복지 사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모든 살레시오회원들에게, 국적을 구분하지 말고 특별히 이민자들을 돕도록 권고하며 최대한 보편적인 자선활동을 하라고 강조하였다.

살레시오의 성인들의 모습 중에서 리날디 신부를 특징짓는 점은 부성애이다. 그는 33세의 원장으로서 이런 결심을 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견뎌내면서 형제들에게는 사랑과 운유로 대하겠다.” 관구장으로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되겠다. 거친 태도는 피하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러 왔을 때, 피곤하거나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1세대 살레시오회원인 프란체시아 신부는 리날디 신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돈 보스코의 목소리만

부족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갖추고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특별한 기쁨을 가져다준 사건은 1929년 6월 2일, 돈 보스코가 시복된 것이다. 그때 그는 만 오천 명을 인솔하여 로마로 갔다.

그는 사제 수품 50주년을 앞둔 1931년 12월 5일, 루아 신부의 전기를 읽다가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 그의 유해는 토리노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전 지하묘지에 모셔졌다.

## 기도

한없이 선하신 아버지 하느님,  
당신은 복자 필립보 리날디를  
성 요한 보스코의 세 번째 후계자로 부르시어,  
성인의 정신과 사도직을 계승하고  
살레시오 가족 안에 다양한 카리스마적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선함과 사도적 진취성,  
하느님과 일치로 성화된  
지칠 줄 모르는 근면성을  
본받게 해 주소서.  
그의 전구를 통해  
저희가 청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가족연대기

### 캘커타의 제1회 아드마의 날



캘커타(인도). 2024년 8월 24일, 도움이신 마리아 관구(INC)의 캘커타 둠둠에서, 살레시오 가족의 주보이신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를 공경하고,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를 알리기 위해, 제1회 아드마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살레시오 가족 국가 담당인 살레시오회 요셉 마니파담 신부가 집전한 미사로 시작되었다. 강론 후, 환영 의식을 통해, 도움이신 마리아 란치, 도움이신 마리아 바라샤트, 도움이신 마리아 덤 덤의 20명의 신입 회원들이 ADMA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각

영적활성자들은 꽃다발로 이들을 환영했으며, 릴람마 팔리파람빌 관구장 수녀는 이들에게 ADMA 키트를 전달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요셉 마니파담 신부와 관구장 수녀, 그리고 여러 ADMA 그룹의 영적활성자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면서 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살레시오 가족 및 ADMA 관구 담당인 스텔라 데이비스 수녀는 네 개의 ADMA 그룹(란치, 고브라, 바라샤트, 덤 덤)의 활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제1회 아드마의 날의 주제는 돈 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맞아 ‘돈 보스코의 꿈’이었고, 각 그룹은 ‘꿈’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문화 프로그램의 주제는 ‘꿈꾸게 하는 꿈’이었다.

요셉 마니파담 신부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살레시오 영성에서 성모 마리아의 역할과 ADM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메시지와 관련된 퀴즈를 통해 회원들은,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심신을 더욱 두텁게 하고, 본회의 사명과 가치에 대한 봉헌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동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아드마 마자렐로 란치 지회와 도움이신 마리아 지회가 반델에 있는 묵주기도의 성모 성당으로 순례를 떠났다. FMA 회원들과 참가자들은 성당 안에서 묵주기도를 바쳤고,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서도 기적의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테라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더욱 깊게 하고 성지 순례와 기도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막을 내린 제9차 도움이신 마리아 국제대회에서 살레시오 가족 총평의원 레슬리 산디고 수녀는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FMA의 각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ADMA 그룹을 확산시키자고 초대했다.

## 베네주엘라 - 제36차 아드마 전국대회 개최

베네수엘라 에기도 - 베네수엘라 도움이신 마리아회(ADMA)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메리다 주에 위치한 에기도에서 제36차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75명 이상의 ADMA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신앙과 임무를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 통합 생태, 국제대회 메시지 전달 등의 주제를 통해, 정체성과 사명을 심화하기 위해 모였다. 3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ADMA 회원들은, 경험 나눔, 문화 체험, 성지 순례, 미사에 참석했다. 또한 거룩한 구세주의 딸들,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FMA), 돈 보스코의 살레시오 회원(SDB)들이 참여하여 형제적 나눔으로, 살레시오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었다.



## 브라질 - 환영, 우정, 교리 교육, 희망의 장소인 레센데에, '성요셉' 오라토리오를 새롭게 열다

지난 9월 28일, 레센데의 베이라 리오 지역에 있는 '미래 교육 센터(Centro Educativo Esperança do Futuro)'에 '성 요셉' 축일 오라토리오 개원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는 살레시오 회원, 살레시오 청년 운동의 젊은이들, 살레시오 협력자들, 도움이신 마리아 회원들이(ADMA) 참석했다. 이 오라토리오는 교육, 신앙,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지는 환영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성 요셉' 오라토리오는 가족을 위한 만남과 양성의 장소가 되어 세대를 하나로 묶어 주는, 더 정의롭고 단합된 미래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탄생했다.



## 월간 기도지향

### 희망의 순례를 위하여

---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전 세계 모든 아드마 그룹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 희망의 순례를 위하여

이 희년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